

## 민수기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성경: 민 1:1, 6:13-16, 7:1, 11-17, 9:15-18, 21, 20:6-8

- I. '삼일 하나님'은 주로 신성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신성한 삼일성'은 주로 신격의 주된 속성, 곧 하나님께서 삼일(三一)이신 것을 가리킨다 — 마 28:19, 계 1:4-5.
- II. 성경 전체의 구조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되어 있다 — 창 1:26, 출 3:14-15, 민 6:24-26, 사 6:8, 마 28:19, 고후 13:14, 엡 3:14-17, 계 1:4-5.
- III. 우리가 기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힘을 들여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 마 28:19, 계 1:4-5.
- IV. 비록 성경이 많은 명확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지만,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교리는 전혀 담고 있지 않다.
  - A. 그 대신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신성하고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많은 서술들 안에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 엡 3:14-17, 4:3-6.
  - B. 성경에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교리들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동참하고 그분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려는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 C. 성경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4:19-20, 23, 엡 4:3-6, 계 1:4-5.
  - D.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삼일 하나님을 누리며 체험하는지를 알도록 해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엡 1:3-7, 13-14.
- V.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이다 — 고후 13:14.

## 민수기

### 메시지 6 (계속)

- A. 삼일 하나님의 분배보다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B. 강한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 롬 8:2, 10-11.
- C. 신성한 삼일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수행하실 길이 없을 것이다 — 엡 3:14-17.
- D. 신약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심을 계시해 준다 — 엡 4:6, 요 14:20, 23, 롬 8:10-11, 고후 13:5, 골 1:27, 빌 2:13.

### VI. 신성한 삼일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이다 — 마 28:19, 살전 5:23.

- A. 우리 안에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고후 13:14.
  - 1. 신성한 삼일성의 셋 가운데에는 조화가 있다.
  - 2.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그 영은 아들에 관해 증언하신다 — 마 3:17, 17:5, 12:28, 빌 2:5-11, 요 16:13-15.
- B.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인 우리는 내주하시는 신성한 삼일성과 협력해야 한다 — 요 14:16-20, 23.
- C. 결국 우리의 전 존재,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신성한 삼일성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신성한 삼일성과 협력한 결과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시며 나타나실 것이다 — 살전 5:23, 살후 1:10, 12.
- D.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한 삼일성과 연합되는 생활이다 — 고후 13:14, 엡 3:14-17, 4:4-6.
  - 1.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요 3:15)과 십자가(골 1:20)와 그 영(롬 8:11)과 말씀(렘 15:16, 요 6:63), 이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신성한 삼일성과 연합되게 하신다.
  - 2. 우리는 항상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십자가와 말씀을 통하여 그 영과 교통해야 한다 — 고후 13:14, 롬 8:11, 골 3:16.

### VII. 겉으로 보기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것과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기록의 구조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되어 있다 — 민 1:1, 6:13-16, 7:1, 11-17, 9:15-18, 21, 20:6-8.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6 (계속)

- A. 신성한 삼일성이 없다면 민수기의 기록은 공허할 것이다. 민수기의 기록의 내재적인 실재는 신성한 삼일성이다.
- B.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육체 되심을 본다.
1. 민수기 1장에서 삼일 하나님의 육체 되심을 보기 위해서는 궤가 있는 성막의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 a. 성막 안에는 궤가 있었고, 궤 안에는 율법이 있었으며, 이 율법은 ‘증거판’이라 불리었다 — 민 17:4, 10.
    - b.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보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이다.
    - c. 하나님께서 사실상 중심이실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자신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금이 입혀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나무와 금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 한 실체인 궤는 신성과 함께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2. 궤를 가진 성막의 그림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 시어 사람들 가운데 사시는 것을 본다.
  3. 성막의 널빤지들의 개수인 48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a. 48은 6 곱하기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활(8) 안에 있는 사람(6)을 상징한다.
    - b. 48은 또한 12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가 의미하는) 피조물 안에 계신 (3 곱하기 4인 숫자 12에 포함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 c. 이 그림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 는 삼일 하나님을 본다.
  4. 궤가 있는 성막에 관한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단지 하늘들 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그리고 그분의 체현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본다 — 골 2:9.
  5. 육체 되심을 통해 한 사람으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은 확대되시고 증가되시고 확장되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확대와 확장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되 셨다 — 요 1:1, 14.
    - a.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만 계셨을 때에는 누구도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었 다. 그리스도의 확대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민수기

### 메시지 6 (계속)

- b. 이제 성막으로 확대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시다.
  - c.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신다 — 요 11:25, 14:6, 요일 5:11-12.
  - d.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로서(골 3:4) 우리의 삶의 의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 즉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분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그분은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6.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한 처소로 확대되셨는데, 하나님은 이 처소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 처소 안으로 들어간다 — 요 1:14.
7. 하나님은 거처를 갖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 장소를 갖고 있다 — 요 14:20, 15:4-5, 고전 6:17.
- C. 신성한 삼일성은 나실인의 분별에서도 계시된다 — 민 6:13-16.
- 1. 신성한 삼일성이 나실인의 분별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제물들, 곧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소제물을 통해 나타난다 — 민 6:11-12, 14-17.
  - 2. 나실인은 회막의 입구로 이끌렸다 — 민 6:13.
    - a. 회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그분의 백성이 모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b. 회막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과 영역이시다.
  - 3. 신성한 칭호인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삼일성을 나타낸다 — 출 3:14.
  - 4. 나실인의 분별은 예표에 있어서 나실인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 D. 신성한 삼일성은 성막의 기능과 제물들에서 계시된다 — 민 7:1, 11-17.
- 1. 성막과 제단의 기능의 시작은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된다.
  - 2. 성막의 기능과 제물들은 민수기 7장에서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6 (계속)

3. 이 봉헌은 성막, 그 모든 기구들과 제단, 그리고 그 모든 집기들이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통해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민 7:1).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신성한 삼일성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E. 신성한 삼일성은 성막을 덮는 구름과 불에서 계시된다 — 민 9:15-18, 21.
1.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든지 혹은 여행을 하든지 언제나 줄곧 신성한 삼일성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나 여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신성한 삼일성으로서 그들과 함께하였다.
- F. 신성한 삼일성은 매 맞은 반석에서 계시된다 — 민 20:6-8.
1.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고전 10:4), 물은 생명의 영을 예표한다(요 7:38-39, 계 22:1-2).
  2. 민수기 20장에서 매 맞은 반석은 신성한 삼일성이 여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이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요일 5:11-12.